

## 온누리 장엄할 큰 연꽃 한송이를...

### 2600년 역사를 3분 30초에

○...영상포교, 그 대장정의 길이 열렸다.  
고분식에 앞서 3분30초간 펼친 컴퓨터 그래픽 쇼는 그 내용과 영상미에서 시청자를 압도했다. 불교의 탄생과 전파과정을 진리를 상징하는 금시조가 인도, 중국, 한국에 연꽃을 피우는 모습으로 보여줘 2천6백년 불교 역사를 압축해 펼쳐낸 거대한 고분식이 거행된 가설 범람에 모인 교계의 지도자들은 말미바전을 통해 컴퓨터그래픽 쇼를 지켜보며 '이 정도의 영상과 기획력이라면 불교TV의 성공은 이미 기약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 전국 본사 환호의 박수

○...1일 불교텔레비전의 개국 장면은 전국의 본사에서 일제히 시청됐다. 불교텔레비전은 지난달 이미 각 본사에 수신 설치를 마쳐 시청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했던 것. 마침 초하루 범불교 경행된 날이라 사활을 찾은 신도들은 화면앞에 모여 장엄한 개국의 화면을 함께보며 환호의 박수를 쳤다. 불국사의 경우 대형

전하기도 했다. 수역사에서 3대의 TV를 통해 스님 신도들이 불교TV를 지켜봤다는 소식이다. 본사 외의 시청로는 통도사 서운암,밀양 표충사, 강화 전등사,보문사 등 10여 사찰이 불교TV의 개국 장면을 지켜 봤다. 조계종 총무원에서도 5대의 TV가 설치됐다.

○...개국 선언문을 낭독한 김승현 방송위원이 이날 하루 화제의 인물로 떠오르기도 했다. 김위원은 오랫동안 극장에서 상영하는 '대한뉴스'를 진행했던 관록의 아나운서였던 것.

### 백남준 쇼 '화제'

○...개국 당일 방송된 특집 프로그램들중 특히 백남준 비디오 쇼와 '종정스님 특별대담'이 많은 시청자들을 화면앞에 불러



○ 개국 특집 '종정스님 특별대담'의 한 장면.

실을 못한 점이 안타까움으로 남기도 했다. 지역 유선방송국에는 개국을 앞둔 지난달 20일부터 3월1일 사이에 가입신청 전화가 폭주해 접수 창구마다 비자람.

### 김영삼 대통령 메시지 세계화선도역할 당부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 28일 종합유선방송 개국과 관련 메시지를 발표했다. 김대통령은 메시지를 통해 "정보화 사회를 촉진시키고 국민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마침내 그 결실을 보게 됐다"며 "케이텔레비전이 우리 방송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화의 선도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영상포교 서곡 전국 뒤덮어...각 본사 일제시청

TV 앞에 모인 신도들이 '와' 하는 함성으로 개국의 기쁨을 표했으며 불국사의 한 스님은 이같은 상황을 전화로 불교 TV에 전하며 "모든 불자가 축하하고 있다"고



"더저 나오려는 울음을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개국 고분식에서 그간의 경과보고를 하고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자리로 돌아온 불교텔레비전의 이태행 방송본부장. 며칠째 집에 못 들어가며 밤낮을 알렸다는 이태행 본부장은 지난 1일의 불교텔레비전 개국은 전국 불자들의 성원이

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에서 직송된 테일로 방송된 '백남준 비디오 쇼'는 백씨의 예술적 기량이 총동원된 대작으로 TV로 다루시는 부처님의 모습으로 시작,불교의 정서와 현대인의 삶이 혼재된 음악들과 함께 어우러져 영상쇼의 맛을 피웠다. 또 통도사 정병전에서 벨렌트 고두심씨가 종정 율하스님을 만나 대담을 한 '종정스님 특별대담'은 종정스님의 일상적 수행생활과 그간의 수행이력을 담담히 들을 수 있어 많은 불자들이 귀를 기울이며

화면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고. 특히 스님은 이날 대담에서 금강산에서의 출가직후의 수행 이야기와 이시대 불자들에게 '바른신앙'의 길을 열어줘 대종사의 기쁨을 새삼 느꼈다는 것이 시청자들의 소감이었다. 이밖에도 3.1절 특집 '3.1운동과 불교' 영화 '민행승 케인' 향 공황영으로 뛰어난 '높은산 깊은 절' 등에 시청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 개국임박 가입신청 쇄도

○...아직 대다수의 가정이 유선방송 시

고 고생한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또 "불교텔레비전은 철저히 불교적이며 그 진가가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며 "불교 문화의 우수성과 부처님 가르침의 위대한 목소리들을 화면 가득 담기 전국에 배달해 불교포교의 새 지평을 열어 가겠다"는 다짐도 밝혔다.

### 인터뷰 이태행 방송본부장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55일간의 시열방송을 지휘하며, 개국하는 날을 기다렸던 이 본부장은 "오늘 불교텔레비전의 개국은 불교계가 라디오 방송에 이어 또 하나의 청담 영상 포교매체를 갖게 됐

해의 1차 주주공모에서 보여 준 불자들의 호응은 전국 방방곡곡에 불교텔레비전의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실감케 했습니다. 기대에 한치도 어긋나지 않는 훌륭한 방송을 만들겠습니다."

## '불자가 주인'...머슴의 자세로 최선을 다할 터

다고 것 보다는 또 하나의 불자 공동체의 보양이 다져 졌다는데 더 큰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부로부터 사업가가를 받는 일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각종 장비와 인력을 갖추는 일 모두가 부처님의 크나큰 가피덕으로 성사된 것이라 믿습니다. 특히 지난

영상 포교의 첫 문을 열고 보니 그간의 준비과정 보다는 앞으로의 일들이 더 많고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본부장은 "다른 방송에 비해 훨씬 우수한 조건을 가진 불교텔레비전은 올 한해만 고생하면 모든 것이 재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달에 20일 이상을 퇴근도 못하

었다. 이 본부장은 금년내로 3백여 이상의 자선화보와 1백만의 시청자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며 "개국을 향해 뛰어들 거를 없이 뛰어들어 이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부처님 법을 전하는 머슴의 자세를 추호도 흐트리지 않겠다는 것이 전사원의 각오"라고 말했다. (태)

## 님의 대원 원음으로 전파하는데 몸과 목숨을 다 바칠 것입니다

### 고 불문

부처님. 우리가 아뢰옵네다. 무량겁을 두고 찬탄할지라도 다 찬탄할 수 없는 부처님. 무량겁을 두고 찬탄할지라도 다 찬탄할 수 없는 남의 가르침을 전파하려는 이 순간. 저희들 가슴은 무량겁을 두고 말할지라도 다 말할 수 없는 감격에 벅차 울라 가느다랗게 떨리고 있습니다.

부처님. 지금 동해에는 님의 동근 광명인양 언종이 트고 하늘과 땅은 모두 법열에 젖어 있습니다. 흙꽃은 풀꽃대로, 풀꽃은 풀꽃대로 크고 작은 푸나무들, 크고 작은 산 들짐승들 유주무주 고흔들고 텔레비전 화면에 나타날 님의 거룩한 모습과 온누리에 울려 퍼질 원음을 듣기 위해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부처님. 이 모두가 진리에 목말랐던 중생중생들의 간절한 염원입니다. 그간 하고 싶었던 말 다하지도 못하고 듣고 싶었던 말 다 듣지 못해 오늘 이 순간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려 왔습니까. 이 애타는 마음마음 염원염원이 한데 모여 이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부처님아시여! 지금 이 순간의 감격감격과 염원염원이 허공계와 중생계가 다하고 모든 중생의 번뇌가 다할 때까지 영원으로 이어져 영원토록 하옵소서.

부처님. 일찌기 우리의 선각자들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불가설 불가설의 몸과 목숨을 보시하되 가축을 벗겨 종이를 만들고, 뼈를 깎아 붓을 만들고, 피를 내어 먹물을 삼아 원음을 써서 유포 하였다 합니다. 이제 저희들도 선각자들의 전법하는 마음을 이어 님의 대원(大願), 대비(大悲), 대사(大捨)를 원음으로 전파하는데 매를 따르고 근기에 맞추어 몸과 목숨을 다 바칠 것입니다.

저 문수의 대지와와 보원의 공대령. 지장의 대안력, 관음의 무변신을 빌어 천존만락을 누비며 빈천한 사람은 그 빈천에서, 병자는 그 병고에서, 억울한 사람은 그 억울함에서 벗어나게, 여러 생애 지은 업장 크고 작은 허물들을 참회하게, 그리하여 진여의 자성을 찾게, 그들의 눈, 귀, 손, 발, 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재동자가 되어 수많은 선자식을 만나 함으로 올바른 삶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보지 못하는 세계가 얼마나 많은가를 낱알이 찾아내어 사막하게 매마른 가슴에 푸르름이 생기는 강토가 되게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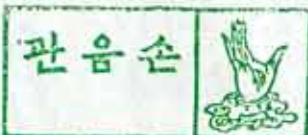
부처님아시여. 이러한 저희들의 서원이 성취되게 항상 지혜와 방편을 주시고 크신 인력으로 남북동양의 예가 퍼올라 7천만 중포들이 이 원음을 듣고 자비와 지혜공명을 얻도록 하옵시기를 앙드려 아뢰고 또 아뢰옵네다.

## 관음손으로 오세요

“ 시내에 불일이 있으시면 관음손에서 만나세요 ”

정겨운 우리가락과 4,000여인의 부처님의 법향이 가득한 관음손- 넉넉한 분위기에 따끈한 차공양도 그냥 넘니다. 잠깐의 쉼으로도 좋구요, 어긋난 기다림으로도 보내기 좋은 장소입니다.

지하철 1호선 종각역이나 3호선 안국역에서 하차, 조계사 쪽 입구에 있습니다.



720-1147~8

“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일도량에서 그 마음씀을 게을리하지 않는 관음손 가족- 오시는 분들께 불자로서 따뜻한 친절을 아끼지 않는답니다. ”

### 관음손에서 하는 일

어린이 포교를 위한 불교용품·불교서적 판매 스님을 위한 신변감화·염주 염가 주문제작 비디오·카세트·설법집·단체용품 기획제작